
 해양수산부		<b>보   도   자   료</b>		 
		배   포   일	2020. 8. 26.(목)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성원, 서기관 강희정, 사무관 윤연미 • ☎ (044)200-5610, 5614, 5616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담   당   자	• 과장 고우진, 연구관 한인성, 연구사 이준수 • ☎ (051)720-2210, 2230, 2231	
	국립수산물과학원 양식관리과	담   당   자	• 과장 황형규, 연구관 김현철, 연구사 최진 • ☎ (051)720-2410, 2420, 2431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주의보·경보) 해제

- 올해 빨리 찾아온 고수온, 작년보다 21일 길어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늦여름 지속된 강우 등으로 수온이 내려감에 따라 8월 26일 14시부터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 모든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 특보 발령 현황 (2021. 7. 12.) 관심/전(全) 연안  
 (2021. 7. 15.) 주의보/전남 함평만, 득량만(내측), 가막만  
 (2021. 7. 20.) 경보/함평만, 주의보 확대/득량만 외측해역  
 (2021. 7. 23.) 주의보 확대/서해, 남해서부, 제주해역  
 (2021. 7. 24.) 주의보 확대/동해 중남부 연안(경북 울진~부산)  
 (2021. 7. 29.) 경보/득량만, 주의보 확대/남해·동해 연안  
 (2021. 8. 4.) 경보/천수만, 남해 연안(전남 진도군 제외)  
 (2021. 8. 26.) 해제/ 전(全) 연안

8월 26일 12시를 기준으로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었던 해역의 수온은 충남 천수만 26.6℃, 전남 득량만 27.6℃, 경남 통영 26.1℃, 제주 24.5℃ 등 24.5~27.6℃ 내외의 수온을 나타내어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인 28℃보다 낮은 수온이며, 정체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올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늦은 7월 초에 시작되었지만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확장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수온이 상승하여 고수온이 평년에 비해 빨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수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과 정체된 장마전선에 의해 고수온의 소멸 시기도 빠르다는 특성을 보였다.

\* 고수온특보 발령기간 : ('18)7.24~9.4, ('19)8.8~8.29, ('20)8.14~9.4, ('21)7.15~8.26

\* 태풍 영향 : 9호(8.8~8.9), 12호(8.23~8.24)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중순 고수온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비상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지자체 등과 상황점검회의, 고수온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와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구성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및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지도하였다.

아울러, 8월 초에는 고수온 대응 예산(1,140백만 원)을 고수온 특보 발령 지자체에 추가로 교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올해 고수온 특보 기간 중 피해신고는 8월 24일을 기준으로 7개 시·도에서 260건이 있었으며, 폐사원인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에 있다. 지자체에서는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에도 10일간 고수온 피해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고수온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빨랐으며, 기간도 길어 양식생물 피해가 늘어났다.”라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